

사도행전 9장 10-22절 말씀

- 10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
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
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
- 11 주께서 이르시되
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
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
- 12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
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
-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
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
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
-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
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
- 15 주께서 이르시되
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
택한 나의 그릇이라
-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

-
- 17 아나니아가 떠나
그 집에 들어가서
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
형제 사울아
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
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
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
-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나 다시 보게 되니라
일어나 세례를 받고
-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

-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
-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
-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
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
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여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
-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
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